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

박 중 현

화이트헤드의 말(*Process and Reality*, N. Y., 1978, p.39.)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1.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게 마련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

<<형이상학>> M(13)권 4장.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업적 두 가지. 학문의 출발점과 관련되는 '귀납적 논의'(hoi epaktikoi logoi)와 '보편적 정의(定義)'(horizesthai katholou). 한데 "소크라테스는 보편자들(보편적인 것들: ta katholou)도 정의(定義: horismos)들도 분리 가능한 것들(chōrista)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분리(chōrizein)하고서는, 이와 같은 존재들(ta onta)을 이데아들(ideai)이라 일컬었다."

* 여기에서 '분리하다'(chōrizein)는 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론적 '구별'이나 '구분'(distinction)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공간적인 분리(chōrismos)임이 확실함.

2. 이와 관련된 플라톤 자신의 언급

<<파이돈>> 편에 이런 언급들이 보임. "존재하는 것들(ta onta)에는 두 종류(eidos)가 있어서, 그 하나는 가시적(可視的: horaton)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aides) 것이겠는데, ... 이는 우리가 인간들의 본성(physis)에 대응하는 것들서 하는 말이다."(79a-b)"눈에는 불분명하고 보이지도 않으나(aides), 지성(nous)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noēton)" (81b), 이런 것은 혼이 감각적 지각(aisthēsis)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보게 되고'(hora) '이해하게 되는'(noēsēi) 것이다.

<<국가>> 편(507b-c). 한 쪽 것들은 "[눈에] 보이기 는 하되, 지성에 알려지지 는(noeisthai)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반면에, 이데아들은 지성에 알려지기는 하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idea← idein: eidos← eidō.

tēn idean pany kalos(Prot. 315e); tas ideas noeisthai men, horasthai d' ou.<<국가>> 507b)

*오관의 각각과 그 대상들은 서로 구별됨. 음악과 미술.

"답은 것에 답은 것이."

*aisthēton=sensible. to aisthēton(the sensible)

*noēton(intelligible=supersensible, supersensual). to noēton(the intelligible)

3. 지성(nous)에 의해서[라야] 알게 되는 것들(ta noēta=the intelligibles=the supersensibles)

1) 인위적인 생산물의 경우.

유홍준 교수가 평안도 지역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방문하였다가 안내원한테서 받은 질문과 그 대답. 그냥 깨진 돌과 떼낸 석기의 차이. "쓸모(쓰임새, 용도, 기능)와 형태를 머리 속에서 구상한 다음, 그것에 맞게 내리쳐서 만든 '깨뜨린 돌', 따라서 그 깨뜨림은 기술적 행위여서, 거기엔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었다"

*Bushman과 콜라빙. 그 용도(chreia, chrēsis) 또는 기능(ergon)에 대한 무지.

*북(kerkis)과 관련된 언급: <<크라틸로스>> 편(389a-390a) auto ho estin kerkis(북인 것 자체). *같은 식의 표현(Phd. 78d 및 <<국가>> 490b 및 이곳의 각주 참조): auto hekaston ho estin. 또는 auto ho estin hekaston(x). Cf. auto to kalon, auto to ison.

air jet, water jet

2) 자연적인 것들의 경우

*입, 입틀, 주둥이의 기능과 구조

*히말라야의 해발 5천 미터 지대의 돌무더기 옆에 피는 대황. 그 좀 아래 지대의 엉겅퀴.

*마다가스카르 섬의 Praedicta(45센치 속의 꿀주머니)

3) praxis와 관련해서

*초기의 헬라스인들이 polis라는 집단의 보존을 생각하다가 갖게 된 가치: andreia(용기) 곧 그 시대가 요구하는 aretē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바라던 헤시오도스의 생각이 미친 새로운 가치들. aidōs와 dikē

*소크라테스 및 플라톤 시대에 새삼 다루게 되는 온갖 가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온갖 가치나 훌륭함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바치기도 하며, 그런 것들의 실현을 통해서 나의 인격도 형성되며, 사회도 나라도 그런 것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가?

*이문열의 <<선택>>(59쪽)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사람의 귀함이다. 사람이 가장 높이 치는 가치는 오히려 그렇게 몸으로 느낄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참됨이 그러하고 아름다움이 그러하고 착함이 그러하고 거룩함이 그러하다.”

4. ‘ 좋음’(善: to agathon)의 이데아(좋음 자체: auto to agathon)가 의미하는 것

1) <<국가>>에서 플라톤은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는 ‘ 좋음의 이데아’를 보아야(idein)만 한다”고(517c) 하면서, 이 ‘ 좋음(善)의 이데아’를 존재론적, 인식론적 원인(aitia) 내지 원리(archē)로 내세우고(509b, 510b-511d), 이에 대한 앎을 ‘최고의(가장 중요한) 배움’(to megiston mathēma=the greatest learning)이라 말하고 있다.(504d-505a)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또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변증술적 논변(dialegethai)에 의해서 일체의 감각(aisthēsis)을 쓰지 않고서 이성적 논의(이성: logos)를 통해서 ‘각각인(...나, x인) 것 자체’(auto ho estin hekaston)를 지성에 의한 이해(앎) 자체(autē noēsis)에 의해서 파악하게 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때, 그는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to noēton)의 바로 그 끝(telos)에 이르게 되네.”(532a-b)

2) 그렇다면 ‘ 좋음(善) 자체’가 원리 또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니코마코스 윤리학>>(4장):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좋은 것(부, 명예, 쾌락, 건강 등)과는 따로 그 자체로 좋은 다른 것이 있으며, 이것이 이것들 모두에 있어서 그 좋음의 원인이 또한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5334b-c): 좋음의 이데아를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시켜 구별할 수 없는 자.

장인(dēmiourgos)의 제작 행위(dēmiourgia)도, 자연 속의 생물들의 존재 방식도, 인간의 온

갖 행위도 그나름의 ' 좋음(善)'의 실현이다.

*' 좋음'의 실현은 적도(適度: to metron) 실현의 형태로 나타난다.

5. 오늘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

* 전 세계의 전체 소비량의 1/3을 소비한다는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 이른바 American excess. 그걸 열심히 흉내내는 한국인들. life style에 대한 반성.

*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적. pleonexia(제 몫 이상을 챙기려는 마음. 탐욕)

*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윤리